■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3-65.
http://doi.org/10.17948/kcs.2022..94.13

【특집: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좌담회 녹취록—

진태원 · 김형찬 · 김홍중 · 윤자영 · 염운옥

【제1부】

■ 참석자 자기소개 및 코로나19에 관한 개인 경험 공유

진태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2일째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좌담회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좌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은 좌담회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제 2년간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인문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사상의 차원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좌담회에는 인문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다섯 명의 토론자가 모였습니다. 오늘 좌담의 순서는 토론자 선생님들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기본 발제를 간단히 한 다음 자유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토론 이후에는 오늘 메타버스로 이 좌담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 청중의 질문을 받아서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좌담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2년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을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그걸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로 있는 진태원이라고 합니다. 제 주요 전공 분야는 스피노자를 비롯한 서양 근대 철학이고 현대 프랑스 철학과 한국 민주주의론을 비롯한 사회 정치 철학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여행도 좋아하지 않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 초기에는 코로나가 유행해도 그 이전의 생활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한 2년 가까운 시점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무력해지고 보통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지만, 약간 좀 우울한 기분도 들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학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나다 순으로 선생님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형찬: 민족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찬입니다. 고려대 철학과에서 한국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철학 중에서도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유학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스스로 철학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주체였는데 지금은 서구 학문에 의존하면서 지식을 또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생산 체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지식생산체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문제를 주로 고민하면서 한국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년간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진태원 선생님만큼이나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도 걱정이 되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노트북만 보고 강의하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별다른 이벤트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상에 더 충실해진 것 같아요. 주로 하는 일이 교육과 연구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른 경험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먼저 교육의 측면에서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목은 소수 강의였기 때문에 바로 대면 강의로 전환을 했고, 학부 강의는 지난 학기 후반기부터 대면 강

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바로 대면 강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하고 직접 만나서 강의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술 문제인데 학술은 학술회의를 온라인으로 해도 사실 할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그런 기회는 없어지지만 이동하는 시간 줄고 끝난 다음에 뒤풀이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학술적인 논의를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학술적인 논의들은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중: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이론과 문화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홍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근 관심은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론과 연관해서 최근하는 작업은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동시에 20세기 주류 이론적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회이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경험 연구와 연관해서는 '인류세'의 도래가 야기한 생태위기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화현상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던 시기 같아요. 강의를 하거나 연구자라는 그런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2년의 격리생활 속에서 사회인이 아닌 저 자신의 여러 모습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로서도 당혹스러운 현상들 앞에서 혼동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사회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구 위에 사는 존재다, 내가 지구적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염운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운옥이라고 합니다. 경희대 글로컬 역사문화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뜻깊은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메타버스로 듣고 계신 청중들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는 게 보이고 이런 메타버스로 중계되는 경험도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서양 역사, 서양사 연구자이고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생학의 역사를 전공했고, 최근에는 인종주의의 장기적인 역사와 근대성과의 관계를 천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참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생겨난 변화들에 공감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요, 살고 있는 동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관심이 더 한층 높아졌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줌으로 바뀌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한 3시간 하고 나면 쉬어야 되고 맑은 공기를 마스크 통해서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밖을 나가게 되는데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동네를 배회하게 되죠. 그래서 동네를 배회하다 보면 동네 카페도 들어가 보고, 동네 카페 사장님들 어려우시겠다 커피를 한 잔 마시자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네의 나무들이 이 나무는 벚꽃이었구나 이건 아카시아였네, 이런 어떤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역시 있었던 것 같고, 나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 수많은 가사 노동과 밥을 사 먹지 않으면 해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에 대한 또 새삼스러운 자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12월 초였는데요. 작년 제가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했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은 밀접 접촉을 하셨고 수동 감시자로 분류되시니 이런이런 걸 하시라, 그리고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은 거죠. 남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고 오천 명, 칠천 명 나오고 하면서도 나랑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한테 확 다가오면서 그 추운 날 선별진료소 검사를 두 번을 받고 그런 경험, 물론

음성이 나와서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일상이 그냥 고스란히 무너진 사람들이 실제 있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절대 어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경험되지 않는구나에 대한 자각을 제가 소소하게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자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자영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학을 석사에서 전공하고 그리고 다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관심사는 여성주의 경제학에서의 핵심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돌봄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급 노동 그리고 무급 돌봄 노동이 서로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을 변형시켜가면서 성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가에 관련된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노동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유급 무급 노동에 걸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하필 중2 아들과 오랜 시간 집에서 있다보니까 안 겪었을 수도 있는 갈등을 아무래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갱년기가 사춘기를 못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유급 노동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교수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만큼은 어려움은 없었지만 처음에는 모든 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돼서 하늘에서 시간이 떨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렇게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업무들이 재개되면서 온갖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회의가 온라인으로 몰릴 때는 하루에 4개, 저보다 심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뭐 특정 직종에 한정되는 얘기입니다만 온라인이 생활 생계에 어떻게 침투해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가를 몸소 체험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태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젠더적인 차이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돌봄 노동이라든가 자

기에게 가까운 일상의 문제를 좀 세심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자 선생님들이 각자 오늘 좌담회를 위해 준비하신 기본 발제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발제는 될 수 있으면 좀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15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참석자 기본 발제

진태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발적이고 외생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 자체의 내재적인 성격 또 내생적인 어떤 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과 연동돼 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우선 좀 짚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체계에 대해서 우발적이고 외생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했고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팬데믹을 언젠가는 그냥 지나가 버릴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화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러고 나면 다시 옛날의 시스템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발적이고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필연적이고 또 내생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질병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의 어떤 병리성 또는 시스템의 모순을 증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내생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단일한 사건이라기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들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다중적인 팬데믹이라고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기후위기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같은 것으로 표현됐던 인종주의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나타났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히 우발적이고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길게 보면 한 600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현대 자본주의 양식과 관련해 보면 한 40여 년 됐지만, 자본주의 문명의 어떤 병리성 내지 내재적인 모순들하고 사실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양식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이것과 다른 어떤 삶의 양식을 사고하거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점차 확장되면 될수록 단순히 사람들의 노동, 시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이 사실은 이 플랫폼 자본주의나 디지털 자본주의가 조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시스템에 대해서 내생적이고 뭔가 그것의 병리성과 연관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론적인 전회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론적인 전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얘기하면 인간은 더 이상 사회 역사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을 자기 존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갖고 있고 또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이 변동이 인간의 삶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더 유념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관계론적인 전회의 또 다른 논점은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이 새로운 삶을 사고하거나 실천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가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서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제일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최근 인문 사회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대로 얘기하면 취약성(vulnerability)과 돌봄(care)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론적인 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취약성과 돌봄에 기반을 둔 그런 전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형찬: 그러면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경험들에 대해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들 해 주셨는데 벌써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지 3년 차이고, 그 사이에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메타버스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겠지요.

작년 이맘때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어요. 그때 준비를 할 때 이미 팬데믹의 유행을 두어 번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백신 개발 스케줄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대면 회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획을 했지요. 근데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4차 유행인지 5차 유행인지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몇만 명대를 넘어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익숙했던 질서를 깨뜨린 이런 무질서 앞에서 우리의 예측 능력이 완전히 무력해진 거죠.

무질서 속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고 그걸 가지고 질서화해서 어떤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해 가는 것은 인간의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력화된 거예요. 인간들이 뛰어난 인식 능력, 의사소통력, 장기 기억력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주고받고 축적하고 수집해서 패턴을 읽어내는데, 그렇게 읽어냈던 패턴들이 이제 맞지를 않는 거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난 '비정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정상'의 질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냈던 기존의 패턴이, 우리가 패턴을 읽고 그걸 가지고 질서를 만들고 이랬던 그 패턴이 중요한 어떤 변수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팬데믹을 얘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 그리고 팬데믹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이런 게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패턴을 인식할 때 중요한 요소로 간주돼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패턴을 다시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상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노멀'이 아닌 이른바 '뉴노멀'을 논의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겠지요. 팬데믹 끝난다고 해서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상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팬데믹을 예상하고 대비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나 의료 체제가 이미 다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팬데믹이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속도로 이 정도의 광범위한 위험을 야기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사실 이런 팬데믹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것, 또 그 주요 원인은 자연 파괴, 기후 변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미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나 이기주의적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종식되기 어렵다는 것, 계속 변종들이 나오리라는 것,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게 된다는 것, 거기에 맞설 만한 시스템을 우리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 이런 정보와 지식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축적되어 왔어요.

이미 축적되어 왔지만 문제는 그것을 사회의 패턴으로 이해하고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가치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식·정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고도 충분히 있었어요. 핵심적인 게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인데 에이즈부터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 신종 플루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치 기준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팬데믹을 겪고 있고 벌써 3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몇 달 전이죠,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

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2040년까지 전 세계의 석탄을 퇴출시킨다라는 초기 목표를 후퇴시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치 기준을 정상 질서로 되돌리게 만들, 새로운 정상 질서를 만들기 위한 가치 조정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대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자유・평등・인권 이런 시민사회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조차도 물질적 풍요나 경제의 효율성 같은 발전주의적 가치에 압도돼 있고, 또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보다는 공동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가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유・평등・인권과 같은 가치는 아직도 부족한 거니까 이걸 궁극적 가치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때 이런 근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부터 다시 늘어놓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장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기록하는 기술까지 개발했고, 그래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대비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말로만 들어보던 팬데믹을 직접 경험했죠. 대단히 소중한 경험일 수 있고, 이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 만큼 인간이 현명할까요?

앞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얘기를 했지만, 한 2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지요. 20세기가 막을 내리고 21세기를 맞던 1999~2000년 무렵에 저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언론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식인, 정치인, 문화계 인사들이 모두 20세기를 반성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만들자고 수많은 글을 쓰고 학술회의도 하고 정치인들이 정견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20세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있었

고, 인종 학살이 있었고, 핵무기 사용도 있었고,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은 다 저질렀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21세기에는 그런 짓 그만하고 평화와 번영의 세기를 만들자. 제 기억으로 그때 저도 썼지만 한 2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성문과 다짐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발생했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3일 만인, 14일날 미국 의회에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지요. 한 달도 안 된 10월 7일에는 미국군과 영국군의 공중 폭격을 시작으로,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탈레반 격멸을 목표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 전쟁이 지난해에 미군 철수로 끝났지요. 20년 전쟁이에요.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로,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훈련되고 양산될 수 있는 기반을 그대로 놔둔 채로 끝났어요. 그 사이에 이라크 전쟁도 있었죠. 그것도 9년에 걸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의 22년은 이미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지금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립, 이런 긴장 상태가 또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9·11 테러는 대단히 참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그 하나의 사건이 그전에 2년 동안 반성했던 것들을 단 3일 만에 망각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팬데믹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유엔 회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매일 쏟아내고 있는 엄청난 플라스틱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반성문을 쓸 준비도 돼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의 주요 원인이나 영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팬데믹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재촉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개발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재조

정하고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팬데믹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또 팬데믹이 드러낸 사회의 취약점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이제 관건은 그런 지식과 정보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불편한 현실의 지식과 정보를 직시하는 마음이고 가치 기준을 재설정해서 사회 질서를 재구축하도록 하려는 의지일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팬데믹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공론화시키는 것, 그래서 팬데믹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부로 기억되고 체득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가치 기준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지식인들의 일, 한국의 학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홍중: 네,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좌담 혹은 논의의 타이틀이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이나 사상을 추상적 지식의 체계나 사유의 모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테오리아(theoria)가 '본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쉽게 잊습니다. 이론의 뿌리에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테오리아는 평화로운 정신적 관조를 가리키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이론을 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관조가 아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파국 앞에서 마비되는 체험에 가깝다. 파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론적 사유의 핵심은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사실 놀랄 줄 아는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놀라야 그것을 보게 되니까. 돌려 말하면 마비될 수 있는 능력이 이론적 능력이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놀라지 않는 걸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생각과 개념과 방법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논의를 하는 그런 모습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어

떤 윤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론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사상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발동하는 지점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상태, 즉 무엇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좀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팬데믹을 아까 진태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들의 흐름 속에 있는 어떤 하나로 보는 입장입니다. 구조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사건들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상당히 불길합니다. 2000년에 폴 크루첸(Paul Crutzen)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자연 과학자가 홀로세(Holocene)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의 시간을 오랫동안 관장했던 충적세가 끝나고 인류세(Anthropocene)가 시작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이후 지난 20년간 인류세 개념은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들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작년에는 국제층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가 1945년 경에 인류세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는 결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질학이나 지구과학은 시간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사회나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땅의 시간, 공기의 시간, 지구라는 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1945년부터 인간에 의해서 땅의, 지구의 시간이 바뀐 시간을 살고 있다고 배울 것 같습니다.

제가 팬데믹을 보는 것은 바로 그 인류세라는 맥락에서입니다. 너무 큰 이야기라서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지점을 설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이라면 말입니다. 최근에 쓴 한 논문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쟁점을 코로나와 연관해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1]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

1) 김홍중, 「코로나 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4(3), 2020.

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가 이제 반성 수준을 넘어서 재구성될 때가 온 것 같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비인간들에게 행위자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회학에 국한시켜 말씀드리자면 근대 사회학은 사회를 인간들만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인간들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쟁점이죠. 옛날에는 아시아인이나 여성은 넣지 않았으니까, 아이도 안 넣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에이전트(agent)가 아니죠, 페이션트(patient)죠, 겪는 자들. 인간이란 사실 굉장히 선택적인(selective) 개념인데요. 활동적인 존재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놓고, 겪거나 감수하거나 무능하거나 무력한 자들은 그들에 의한 활동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그런 좁은 사회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삶은 방대한 비인간들과의 얽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우리 시대의 사회를 고민할 때 동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숨 쉬는 공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물 혹은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약 약품들, 이것들이 발휘하는 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퇴치 대상 정도로, 거의 파스퇴르 이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견해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갖고 존재하는 하나의 준(準) 시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준시민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사회과학 안에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명해 보이는 질문이 이제는 어려운 질문이 됐습니다. 특히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동아시아와 유럽, 미국이 좀 다르지만) 예전의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서로 얼굴을 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진화하고 진보하는 것으로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는 모임이고, 회합이고, 연대인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두어야, 서로 안 만나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것입니다. 사회성과 사회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17세기부터 약 19세기까지 유

럽에서 만들어진 사회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복잡한 질문이 던져진 상황입니다. 즉 사회적인 것이 우리 시대에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위상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비말(飛沫) 현상을 보면 평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인간 몸과 인간 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미시적 교통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침 혹은 어떤 병원체들, 마이크로브(microbe)들. 이런 어떤 연결성 혹은 트랜스-코퍼리엘러티(trans-corporeality), '간 신체성'이죠. 비말 속에서 우리는 근대적인 개인, 즉 인디비주얼(individual)이 아닙니다. 개인이란 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입니다. 피부 아래에 근원적 자기동일성을 갖고 있는 존재. 타자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 존재. 사회와 타인들에게 빚진 바 없는 자족적 존재. 그래서 권리와 주권을 가진 존재. 서구 근대의 발명품이죠. 사회란 이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픽션인지를 팬데믹이 모두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로 마스크나 백신이나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근대적 의미의 자유 개념을 둘러싼 갈등적 현상들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근대를 구성한 세 가지, 인간 사회 개인 이런 개념들이 지금 크게 흔들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21세기에 문명적인 이런 변화가 17세기 유럽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근대 문명으로 전환되던 17세기에 저술된 여러 사상서들을 보게 된다면 신과 인간이 굉장히 혼재된 채로 모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의 혼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약 한 4세기 정도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문명으로 위험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에게는 파국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파국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국을, 파국적인 어떤 세계의 나타남을 좀 더 감수성 있게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상당히 전환이 어렵

게 올 것이고, 그리고 쉽게 온다 할지라도 이 전환은 오랫동안 혼동을 지속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다소는 비관적인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염운옥: 네, 저는 인종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주의와의 관계, 특히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같은 현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이 됐는데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사상으로서의 코로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인종주의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근대적인 개인이라는 건 자립해 있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언제나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럴 역량이 있는 개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또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종주의라는 주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동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물론 동시적으로 표출된 건 우연이죠, 시간적인 우연이지만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징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읽어보고 싶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거기서 나고 자란 아시아계인데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아시아계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난 여기서 태어나서 프랑스어를 말하고 하는 사람인데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가 우리 조금 극복했어, 이제 컬러 블라인드(color-blind)하게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이제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착각, 그게 정말 착각이었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인종주의, 피부색에 따라 사람 차별하는 인종주의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흑인이나, 미국 같으면 라티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통계를 내보면 훨씬 더 높아요. 백인들보다 훨씬 높고 많이 걸리고 많이 죽어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걸 의료적으로 보면 의료적 아파르트헤이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제도적 인종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타올랐을 때도 대비되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백인들이 코로나19 상황의 봉쇄에 대해서 시위를 할 때 내거는 피켓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참여하는 흑인들이 내거는 피켓이 내용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백인들은 "골프 시즌을 취소하지 마라"나 "머리하게 미용실 문 좀 열어라" 이런 항의의 피켓을 들었던 반면,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반면에 흑인 미국인들은 "나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외쳤던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즉 "아이 캔트 브리드"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공동체 이런 용어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목이 눌려서, 8분 40초 동안 목이 눌려서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인데 이게 조지 플로이드만 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희생을 당했던 흑인들 중에, 또 그걸 더 깊게 해석해보면 어떤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만연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죠. 이런 게 계속 어떤 특정한 인종의 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 하게 무엇을 해도 따라다니는 이 인종주의 때문에 서서히 질식해 가는 거죠. 숨을 조금씩 쉴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질식에 이르게 되는 이걸 질식 인종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 내지는 전 세계로 질문을 돌려봤을 때 이렇게 인종적인 타자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증폭됐다면 그런 취약함에 놓이는 것이 인종적 타자만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백인들 중에도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젠더적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

들도 있고, 그랬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폐기 가능하고 죽어도 괜찮고 죽으면 그냥 버리고 새롭게 다른 사람을 쓰면 된다는 자본주의 논리, 많은 사람들을 쉽게 폐기 가능한 인구로 만들어버리는 죽음 정치, 즉 네크로폴리틱스(necropolitics)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인종적 타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다, 인종 차별을 시정해라, 이런 얘기는 너무 오래되었고, 새삼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국경을 닫아라,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해라, 왜 국경 폐쇄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금방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 출신의 아이들 혹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재한 중국 동포 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짱깨' 같은 식의 놀림을 받았다면 이제 코로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옆에 못 오게 하고 학교 오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2020년 12월 20일에 포천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비슷한 어떤 유형을 찾는다면 이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농업 노동을 하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그냥 돌발 사건이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숙소에 사람 재우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4년, 5년을 계속해서 외쳐왔던 구호이고 그걸 어떻게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누적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우리가 인포데믹(infodemic)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보 홍수 속에만 휩쓸려가는데, 그 정보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위생을 보호하고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한 정보는 굉장히 많죠. 뭐가 좋다더라고 이상한 걸 막 다려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나는 코로나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는 정보는 많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보는 차단이 되거나 막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죽음 정치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한국의 제도적인 이주 노동 관리의 틀이 있잖아요. 국가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정책인데, 그 정책에 의하면 9년 8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9년 8개월을 체류해도 단기 이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더 이상의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많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가 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을 취약한 상태로 계속 죽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 하고도 한국의 어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산업에 미래가 있나? 없거든요. 이주 노동이 없으면 영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 우리가 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노동을 이주 노동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거죠. 돌봄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죽건 말건, 그래 또 들여오면 되지, 그런데 국경이 막혔네 큰일 났네,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건 부당해,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건가.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초래한 매우 미묘하고 역설적인 상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국가는 늘 이런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법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불러왔거든요. 불법 체류자라고 불러왔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단속 크랙다운(crackdown)을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걸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로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등록도 검사해 줍니다. 초반에 미등록도 검사를 받으세요, 추방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불법이라는 말을 버리고 미등록이라는 말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공적 마스크를 거의 배급처럼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을 먼저 챙겼

죠.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확인이 불가능하고, 마스크를 배급제로 공급을 할 때 거기서 바로 열외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어업 같은 경우는 여권을 선주나 관리자가 빼앗아서 관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권을 일괄적으로 다 거둬가지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데 관행인 거죠. 왜냐하면 섬이나 이런 데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권을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돌려주라고 하면 안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바로 다 공권력에 개입해서 돌려줬다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뭔가 방역이라고 하는 그 대의 큰 뜻 앞에 기존의 제도에서 틈새라고 했던 것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들이 발견되고, 그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하는 것들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틈새를 더 크게 벌리는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 같은 걸 내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취약성, 자유와 평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이 취약성 앞에 선주민과 이주민이라는 걸 계속 나누면서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 이게 얼마나 유효할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유효했죠. 근대 국민국가 체제 안에서 유효했고, 그 경계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행위나 우리들의 생활의 영위가 됐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의미를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 질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자영: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저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돌봄은 때로는 돌봄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 돌봄 노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이론 지평에서는 사회 재생산이라고도 번갈아서 쓰기도 합니다. 약간씩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그 주제가 나오면 얘기를 좀 보충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협소한 차원의 돌봄 노동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돌봄 노동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돌봄과 돌봄 노동은 항상 중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필수 노동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진다거나 아니면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왔던 어린이집이나 학교, 식당, 복지관, 이런 시설, 기관들이 정지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돌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환기시켰던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에 기반하여 질서가 상당 부분 구축되어 왔는데 그것이 흐트러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혼돈의 시간들이 초기에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제공되었던 이런 서비스가 소위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복지 국가 내에서 많은 부분이 시장과 사회로 이전을 했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만 있으면 시민이 내 안전과 사회적 보호가 담보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다는 아니라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 노동 특히 무급으로 여성들이 주로 해왔던 돌봄 노동이 비가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 성장의 주요 지표로 삼는 GDP로 카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화되고 그 비가시화된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수고와 노력이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힘을 얻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오래된 비판이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그러한 노동이 수행되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나 제도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오랫동안 국가가 돌봄을 사회화시켜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기조, 패러다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에서 모든 것을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장으로 올인해야 된다라는 기조에서 여성도 편입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가족 안의 돌봄은 사회화시켜야 되는 것으로만 간주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급과 무급 돌봄 노동을 전체 합산해서 계산했을 때 절

반 이상은 사실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족 안의 돌봄은 없는 것처럼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무급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대가는 상당 부분 소득의 상실이라든가 아니면 노후에 직면하는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누구도 이제 돌봄 노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 동기 부여가 약화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인구학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사회화 되지 못한 돌봄 노동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재분배라기보다는 여성 안에서, 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으로 많이 이전되어 왔고요. 해외에서도 특히 인종적인 분할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의 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번 코로나19의 감염 위기에 직면한 확진자의 대부분이 여성, 특히 취약계층 여성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돌봄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도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죠. 많은 여성이 위험수당을 지급받는 직종의 일자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험 수당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우리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돌봄 노동의 정의로운 분배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계층 간, 인종 간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태적 전환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K-방역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 음식 배달 앱을 처음으로 다운로드 받고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일하는 여성으로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미래의 기후 변화를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돌봄 노동이 인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까지, 인간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환경을 돌보아야 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별 질서, 돌봄을 둘러싼 성별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성별 규범 질서를 다시 불러내는 징후도 여기저기서 드러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가족이,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가족 안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아이의 온라인 학습을 도와주거나 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아무래도 시장 노동에서 좀 더 열악한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한 일을 떠맡거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가능성도 사실 많고요. 반면에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사회적인 모임을 할 수 없고 아무래도 집에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화되는 경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좋은 일자리에는 남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재택근무를 하는 남성이 아마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경험도 하게 되면서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험하게 되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돌봄에 있어서의 성 역할 분업 내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관행에 균열을 얼마만큼 낼 것인지,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혼돈의 와중에 성별 질서 또한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균열을 내었다라는 것이 좀 유의미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은 인간이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가정에서의 돌봄과 시장에서의 돌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으로 사회로 돌봄을 이동시키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치부를 하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사실은 시장에서 사회에서의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치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질을 하듯이 가정의 돌봄 제공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역량의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했었을 텐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런 것이 수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앞으로 돌봄 노동을 어떻게 재조직할 건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돌봄의 사회화를 넘어서서 무급 돌봄과

유급 돌봄 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건가 천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보상이 주어지는 돌봄 노동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거의 사회안전망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 사회안전망이 가족 안에서 개인이 서로를 돌보는 가족안전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을 넘어선 가장 고전적인 사회인 가족이라는 제도 단위를 어떻게 우리가 위치 지을 것인가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돌봄이 단순히 억압적이고 여성에게 불이익을 양산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와 가족 간의 돌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건가. 사회 안전망과 가족안전망의 이 다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K-방역,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그래도 정말 헌신적으로 의료와 돌봄 현장에 앞서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 현장을 지킬 것인가,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에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일부 간호 인력이 이탈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그만두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할머님이 확진이 됐는데 그분의 보호자가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따라가서 끝까지 돌봤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책임 있는 그런 돌봄 노동자도 사실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동기가 정말 어떠한 외부 환경, 경제적인 동기, 경제적인 보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동기에 좌지우지돼서 돌봄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죠. 돌봄과 보상이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위험수당을 제공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편향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돈 받고 일하잖아요.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도 받는. 왜 돌봄 노동은 그렇지 못한가 왜 우리는 일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돈을 덜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돌봄 노동의 선의에만 언제까지 기대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생적인 위기라면 앞으로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이번 계기로 돌봄 노동, 돌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점이 환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비말이라는 것이 산업안전에 주요한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부각된 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산업안전이나 보건법 체계를 재편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말이 위협적인 요소일 때 사회안전망, 시설 중심의 사회안전망, 이게 여전히 유효할까? 그리고 또 그런 키워드도 등장했어요. 비대면 돌봄. 우리는 돌봄을 대면과 대면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대응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이 AI나 돌봄 로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돌봄을 넘어서서 인간이 환경을 돌보고 로봇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그 인간과 로봇의 윤리적인 관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두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돌봄 로봇이 좀 더 보편화돼 상용화가 한 단계 더 앞서서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질문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조만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2부】

■ 자유 토론

진태원: 이제 휴식 시간이 끝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마침 염운옥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얘기해보시죠.

염운옥: 네. 청중들 잘 쉬고 오셨나요? 지금 메타버스로 앉아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김홍중 선생님이 발제하신 부분, 진태원 선생님이 발제하신 부분과 연결될 텐데, 관계론

적인 측면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환도 보게 되겠지만,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나아가 사물까지 연결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을 생각한다고 할 때, 사물까지 안 가더라도 인간에서 조금 동심원적으로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할 때, 비인간 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확장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싶지만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애써 안 키우고 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이런 걸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코로나 초반에 입장객이 줄어 동물원이 경영난에 빠지니까 동물을 돌볼 수가 없어서 죽기도 하고, "죽은 동물을 다른 동물에 먹이로 줬다" 그런 흉흉한 얘기들도 나왔던 한편, 또 다른 동물원의 경우, 아마도 재정 자립도가 높았던 동물원이겠죠? 동물들이 너무 해피(happy)하다, 사람이 안 오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뭐 던지고 '나와봐라'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나오기 싫은데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억지로 동물원에서 갇혀서 하던 행위들을 안 해도 되니까 동물들이 오히려 동물의 복지가 향상됐다, 그런 상반되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사고, '애니멀 턴(animal turn)' '동물로의 전환' 이런 얘기들이 인문학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김홍중 선생님과 진태원 선생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중: 네. 저도 고민을 하던 주제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많이 교육받고 또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생각은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아직 인간의 고통도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동물까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고통의 위계나 순서가 있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그 순서나 위계를 정하는가?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트겐슈타인이 사자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사자가 사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하고자 한 말은 이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입을 벌려서 발화하는 기호의 연쇄가 아니다. 언어는 삶의 형식 전체다.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짜임새다. 동물이 인간 언어를 흉내, 모방한다 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해불가능성을 동물하고 인간 사이에 설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저런 입장에는 뭔가 더 따져볼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진짜 말을 하면 저는 놀라 자빠지거나 아니면 저 누가 뒤에서 장난치고 있거나, 녹음기를 숨겨 놓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은 동물을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실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물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말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사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몇 가지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인류세를 주창했던 폴 크루첸(Paul Crutzen)이라는 자연과학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반이 인류세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산호초 연구를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바닷속의 산호초가 탈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탈색이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화학적 작용이 가해진 탈색처럼 보였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바다 밑에까지 인간 작용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식물이든 동물이든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살아 있는 생명체는 사인(sign)을 보내는 존재인 것이에요. 기호를 발산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기호는 우리에게 가깝고, 가령 포유류의 표정 같은 건 가깝고 산호초의 색깔 같은 건 인간에게 멀지만,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꽤나 오랫동안 우리가 비인간 생명체들과 공존해왔기 때문에 생명들이 발산하는 기호를 해석하는 번역가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사냥꾼이건 농부건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아닌 생명체들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고, 그들로부터 피해야 하니까요. 최근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자연 과학자라고 부르죠. 앞으로 더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물이 동물의

몸짓, 표정, 움직임, 소리를 내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하는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그들의 지배자나 관리자라기보다는 그들의 변호사라고 봐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공생하니까, 그들의 멸종 가능성이 우리의 멸종 가능성에 수렴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과적 학문들이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그 해석가능성, 소통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인도주의적으로 논하기 전에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전향적인 방식을 좀 더 법적으로 등,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옥: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했다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의 언어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에 대해서, 아마 존 그레이(John Gray)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신랄하고 짧은 한마디로 딱 받아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사자를 돌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비트겐슈타인은 사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와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만이 과연 우리의 존재가 소통하는 방식인가라고, 질문을 바꾸면 사자와 소통은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태원: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해방, 동물권 주장했던 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서양철학 특히 서양 근대철학을 보면 아주 일관된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사고방식입니다.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로

놓고, 물론 그것은 항상 성경을 자기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동물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가 하면, "동물은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복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처분 가능한, 사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단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배고프면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필요가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동물은 도덕적 존재자의 지위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어떤 존재가 도덕적인 존재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동물은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덕적 존재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자에게만 도덕적 존재자의 지위를 부여할 게 아니라, 센티언트 빙(sentient being) 일반에게 우리는 도덕적 존재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센티언트 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통 "유정(有情) 존재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자라면 도덕적인 존재자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쾌고감수(快苦感受)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자라면 도덕적 존재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존중하고 돌보고 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김홍중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인간 이상의 어떤 에이전시(agency)를 사고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에이전시가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션시"(patiency)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력, 그런 것을 바탕으로 동물이라든가 비인간 존재자의 도덕적 지위를 우리가 새롭게 사고할 가능성, 이런 것이 우리가 '사상으로서의 코로나'를 얘기할 때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중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셔서 책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지구를 위한 변론』 같은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되는 지구

를 위해서 대리 소송을 하는, 아마 그런 소송들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실제로 전개가 되는가 보던데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페이션시"에 주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원이 있겠죠. 인간이 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내에서도 어떤 주류가 비주류를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과학철학 전공자와 함께 '로봇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로봇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다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요즘 자율자동차 얘기가 나오지만, 완전자율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 제조자와 소유자가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설계자와? 이런 문제가 논의됐었어요. 그런데 그건 당장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이고, 당장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분쟁들이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보험사와 법학자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의에서 로봇도 그렇고 자율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간 이외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존재자들을 설정하고 인정하긴 하지만, 거기에 적용하는 모든 가치 기준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이 차는 사람과 그 옆의 강아지 중에 누구를 다치게 하고 누구를 덜 다치게 할 건가 이런 문제인 거죠. 아니면 그 옆에 나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 옆에 어떤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데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 지위를 논의를 할 때 그 가치 기준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논의로 가려면, 다른 존재들의 가치, 그들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까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너무 급한 거죠. 다른 존재들하고 지금 막 살아가야 되는데,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사물인터넷들도 있고, 그것들과 당장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까지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인간 중심, 인간의 가치 수준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진태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동양사상은 자연친화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이 동양철학이라든가 한국철학에서 동물이라든가 이런 존재자에 대해서 뭔가 서양철학처럼 그냥 도구의 지위를 부여한다든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떤 특별한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가요?

김형찬: 도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근대 이후에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서구의 철학보다는 다른 존재자들을 많이 고려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과 타자를 구분할 때 중요한 구분점이 도덕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양에서도 전통적인 구분 기준은 도덕이에요. 순자(荀子)가 잘 정리했는데,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때 구분점이 '의'(義)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는 그것을 도덕적 판단력 혹은 분별력이라고 해석해요. 사람만이 도덕적 판단력 또는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순자와 연관된 유가(儒家)와 법가(法家)뿐 아니라 도가(道家)까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도덕적 관점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서구의 근대철학은 르네상스의 이후에 개인을 사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로 끄집어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17세기부터 사회 단위로서는 국가 또는 국민국가를 세계의 구성 단위로 설정했지요.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서 유지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산업화와 연관이 된 것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일하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와 달리 동양철학의 경우에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지요. 아무리 인간이 인간중심적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른바 동양철학은 자연에 크게 의존하

는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철학이니까 근대 산업사회의 철학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도 타자와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체성을 설정하기보다는, 어느 군주의 신하로서, 누구의 아들, 부모, 혹은 형제로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 중첩된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설명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은 서구 근대철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지만, 주변과의 연계성, 주변을 고려하는 관계 중시의 관점 등은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지금 관계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타자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다시 고민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인과 국가 단위의 사회 관계들을 재설정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아주 오래도록 경험해 본 농경사회에서 타자들과의 관계들을 참고하는 것도 유용할 거예요.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했던 농경사회에서는 아무리 인간중심주의적이라고 해도 동물, 식물, 대기, 날씨 등을 많이 고려하게 되죠. 그렇게 타자와 환경을 고려하는 관계 맺음은 산업사회에서의 개인과 타자의 관계를 나누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겠죠. 동양철학은 그런 농경사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자영: 동물에게 도덕적 존재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이미 동물들이 인간과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반려묘나 반려견인 경우에 그럴 것 같은데, 가족처럼 대우하잖아요? “엄마가 뭐 해줄게, 아빠가 뭐 해줄게.” 이미 가족으로 들어와 있는(…).

진태원: 성도 붙이더라고요. ‘김삐삐’ 이렇게.

윤자영: 그렇죠. 아들 딸, 이렇게 이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과 인간 간의 이 돌봄의 관계가 사실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대신에 동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수록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그 동물을 얼마

나 가족처럼 대하느냐, 얼마나 인간과 비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처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도덕적 존재의 지위를 부여하고 소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랬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인간이 쉽게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럴 때 "인간의 친밀성은 또 어떤 식으로 다시 재구성될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안식과 위로를 구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태원: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한두 가지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돌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친밀성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죠. 전화하기를 두려워해서 '배달의민족' 같은 것이 떴다, 배달의민족은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문자로 찍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물과 인간의 관계, 특히 반려묘나 반려견 같은 반려동물이 인간과 맺는 관계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었던 인간들 사이의 가족관계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친밀성 관계 중 하나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려동물과의 친밀성 관계를 중시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도 모종의 위계(位階) 관계 같은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주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동물인 것이죠. 반면 사람의 경우는 내 말도 안 듣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회피하는 반면,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밀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어떤 종류의 위계성, 인

간과 동물 사이의 모종의 위계질서를 함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반려동물의 지위가 법적으로 점점 더 상승된다면, 오히려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 사이에 어떤 괴리, 지위상의 괴리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해 주시던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염운옥: 저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가 지금 이대로 보다는 훨씬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려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우월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많이 표출될 수도 있고, 우선 반려동물에게 저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과 그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 관계론적인 전회 이런 게 일어나고, 인간과 사고의 폭이 다른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소통의 방식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찾는다면, 인간의 언어는 당연히 아닐 테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방식이 더 증대가 되고, 그런 지평이 열린다면 반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려의 문제, 한국에서 반려동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저는 문제적이라고 보거든요.

진태원: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염운옥: 네. 반려와 유기는 짝을 이루어서 가는 거니까.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가족이 아니거든요. 가족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사실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인간과 사는 게 편할까, 말이 안 통하는 동물과 사는 게 편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인간과 사는 쪽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진태원: 그래서 주제를 전환해 보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서양철학에서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 존재론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동물과 사회의 하층 계급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보입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말을 할 줄 아느냐 여부, 그러니까 로고스(logos)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규정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노예 같은 존재자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은 로고스가 없는 존재자,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층계급도 인간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 사이의 지위의 차이는 사회적인 위계, 또 사회적인 지배 문제하고도 연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발제에서 관계론적인 전회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그러한 전회는 취약성을 지닌 존재자들의 입장에서 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동물의 지위 문제도 재고찰할 수 있을 듯한데, 문제는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동물 사이의 불평등이 괴리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의 복지나 권리는 신장되어 가는데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존속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심화되는, 이런 상이한 경향들이 병행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중 선생님하고 윤자영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중: 어려운 주제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움직여가는 방향 안에 구체적으로 녹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2008년이죠? 쇠고기 촛불이 2008년이죠. 2008년부터 한국 사회가 지난 한 10여 년간 간 방향은 소위 서구적 의미의 '자유'나 '평등'이나 '연대' 같은 대단히 근대적인 가치가 실현돼 가는 방향이었다기보다는, 매우 독특하게 '안전'과 '공정'이라는 두

개의 묘하게 다르면서 유사한 가치가 헤게모니를 쥐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는 제 생각에 전방위적인 안전이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삼킨 시대라고 봅니다. 세월호가 있었고 페미니즘 리부트가 있었죠. 이때 안전은 꼭 생사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의 신체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권리 주장이기도 하고,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강력한 정의에의 요구, 혹은 공정성에의 요구를 보여주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안전과 공정. 이 두 에너지 중에서 안전에 대해 말해 보자면, 저는 이 집합적 열망이 인간 한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로직(logic)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나 어떤 부당한 가해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이 세대적으로 혹은 젠더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건데요. 이게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저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동물 약자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싶은 자는 약자이고 피해자고 불안한 자인데, 그 불안을 사회적 목소리로 모아 내는 과정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다른 약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령, 동물이나 장애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20대 30대에서, 가령 페미니즘은 비거니즘이나 동물 권리와 친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다루지는 못하면서 소비의 차원에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타난지 얼마 안되는 사회적 흐름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저 운동의 핵심에 대단히 도덕적이고,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도덕적이고 상당히 퓨어(pure)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현실의 경제 논리나 사회 논리를 심지어 무시하면서도 도살장에 가서 공장식 축산 반대하는 운동으로 번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역설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시달려온 한국 사회가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평등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자유냐? 노동 현장에서 죽지 않는 게 자유지. 안전으로서의 자유. 왜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저렇게 안전하게 살고 부모를 못 만

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안전의 평등. 안전하지 못한 것들끼리의 연대. 자유, 평등, 박애의 변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물권이나, 이런 인간 약자와 비인간과의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저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완숙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광범위한 공감에 기초한, 이해가능성에 기초한 도덕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움직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태원: 흥미로운 말씀인데 염운옥, 윤자영 선생님 두 분도 이 안전과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염운옥: 저는 김홍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서 역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0년 1년 동안에 산업재해로, 그러니까 질병 사고 그리고 추락이나 상해 등의 재해를 포함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2,438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고, 이 중에 소수의 이주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산업재해로 2천 명 이상이 죽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노동자들 대부분이 하청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어떤 공감의 기반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사고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4~5년 동안에 학생들하고 수업에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할 때 느끼는 게, "확실히 이 아이들에게 동물이 시야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제가 확연하게 느끼거든요. 그 이전의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배우게 되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20대 30대 세대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의 안전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하신 얘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윤자영: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는 여성학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1999년에서 2008년까지 미국에 있었고, 들어왔더니 '돌봄' 그리고 이미 정부 영역에서 소위 '성주류화'라는 의제가 이미 정책 영역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페미노크라트'(feminocrat)가 주도해서 '돌봄의 사회화'라는 의제가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여성학이 그때만 해도,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사실 침체기였는데 그것이 리부트 된 것이 결국은 섹슈얼리티의 문제, 돌봄이나 어떤 성별 분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위협에서 안전하고 싶은 움직임이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돌봄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도 발제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돌봄은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결혼 관계에 안 들어가면 되고, 친밀한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아이는 안 낳으면 되고, 부모를 돌보는 책임만 없으면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청년 세대의 주요 요구가 혼자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독신의 삶을, 1인 가구 주거, 그렇게 최근 들어 청년 주거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 사실 청년들이 혼자 살고 싶은데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는 안 되고 부모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실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혼자 살더라도 친구랑 같이 살겠다, 동물과 같이 살겠다라는 식의 그런 대안적인 가족 구성권, 그러니까 어떤 인간끼리 살더라도, 이성애적인 그런 결혼 관계에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비인간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해달라라는 식으로 갔던 것이죠. 선생님도 '관계론적 전회'라고 하셨듯이, 저는 이제 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이 돌봄이라는 것이 매력적인 의제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적어도 2030 때는 돌봄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물론 나이 들어서는 직면하게 되지만 인간의 시계가 그렇게 장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인구 규

모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외국 인력 쓰고 버리면 된다"라는, "외국 인력을 투입하자"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로 자꾸 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이런 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2030과 돌봄 문제는 사실 좀 비관적인 전망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태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갖는 약간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듯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은 김홍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다양한 종류의 비인간 에이전시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비인간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기 위한 관계론적 전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윤자영 선생님 말씀에 의거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을 점점 더 개인화하도록 촉구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1인 가구라든가 비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가족 관계가 분화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사람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개별화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개인화 경향(이걸 그냥 개인화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지는 더 생각해봐야겠지만)을 오히려 가속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찬 선생님이 '가치의 재배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개인의 인권 같은 것은 여전히 근대적인 가치 이런 게 될 텐데, 가치의 재배열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런 현상들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찬: 지금 팬데믹의 경험은 아마도 그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다 드러내야 할, 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김홍중 선생님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 활동을 하면 죽는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사회활동을 하지 않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건데 사회활동을 안 해보니 편한 점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어제 발표하셨던 송길영 선생님이 ‘혼밥’의 유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울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끝나면 뒤풀이도 해야 되고 했는데, 그거 안 해 보니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어디까지 맞는 건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강요된 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니 교육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너무 필요하더라, 온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사회적이어야 되고, 과도하게 사회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정말 인간의 속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를 겪고 도시화에 맞추면서 그 사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장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정말 다 드러내놓고 “인간이 어디까지 사회적인가? 어디까지 사회적이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인간과 타자와의 관계라는 것도 사실 그 경계를 지금처럼 구분하는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동아시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문화권의 종족과 다른 존재로서 오랑캐를 금수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아왔어요. 문화인하고 오랑캐의 사이보다는 오랑캐하고 금수가 더 가깝다고 봤던 것이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 사회에서 노예들을 대하는 인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말이 안 통하고 피부색이 다른 노예들을 부릴 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린네(Carl von Linne)의 식물 분류법이 나오면서부터일 거예요. 그게 18세기 중반 정도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옷도 다르게 입는 저것

들하고 내가 뭐가 같은가?" 이런 게 명확치 않았어요. 같은 인간으로 분류하고 보니 달리 보이게 되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고릴라와 사람의 유전자가 몇 퍼센트 같은 줄 아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게 보면 개와 사람의 유전자는 얼마나 다를까요? 다른 것보다 같은 게 훨씬 많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논의들이 아마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중: 좋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인류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지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디페쉬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라는 포스트콜로니얼 역사학의 대가가 2009년에 쓴 논문이에요. 이분은 어쨌든 역사학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무게중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류세에 대한 네 가지 성찰을 정리를 하는데, 그 네 번째 테제가 '역사학이 가능하냐?'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인류세가 도래했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펀더멘탈(fundamental)하다, 왜냐? 실제로 21세기까지 인간이 역사적 주체로 등장할 때 민족으로도 등장하고 계급으로도 등장하고 젠더로도 인종(race)으로도 등장했지만 종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species)이야!" 하면서 역사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야!"라든가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야!"는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야"라는 구호로 역사가 구성된 적은 없어요. 그럼 종으로서 인간의 개념은 어디서 오느냐? 과거에서 안 온다는 겁니다. 미래에서 온다. 왜 미래에서 오는가? 미래의 멸종가능성 때문입니다. 종의 멸종이라는 가능성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으로서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차크라바티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민인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정체성이 과거가 아닌 미래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크게 흔들려요. 저는 감명을 받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저도 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는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동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좀 연장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인간이라는 걸 실체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에 더 가까운 것이죠.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교섭의 대상이니까요. 이것은 인간이고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가, 거기다 이제 여성도 넣어주고, 아시아인도 넣어주고, 흑인도 넣어주고, 지금은 거기에 비인간도 교섭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인간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현실에서, 그 너머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하고 구성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걸 풀어나가려는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섭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는 입장이 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운옥: 인류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디페쉬 차크라바티의 그 논문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탈식민주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이면서도 자기가 딛고 있던 역사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뒤집어버리는 발상이, 그분이 인도계 오스트레일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에 시좌가 있지 않아요. 보는 위치가 오스트레일리아인거죠. 물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애보리진(aborigine)이 처해 있는 상황, 정착식민주의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정치적인 참여를 해왔던 분이라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류세 논의에 관해서인데 이게 매우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류세라고 인간이 작용을 해서 지표면을 바꾸고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질학의 개념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종도 새롭게 구성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인간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기주의라는 의미가 아

니라 인간이 어쨌든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류세적 과제가 인간에게 맡겨져 있고 그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앞으로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린 종으로 공룡처럼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뭐 인간이 멸종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구상에 살다가 멸종하는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종이라는 사고는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종의 기원』이 나오고, 린네부터도 호모 사피엔스에서 분류가 나오지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종을 이룬다는 사고방식은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차크라바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멸종의 위기 앞에 서는 경험은 우리 인간이 처음 겪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인류세라고 하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인간이 나서서 "그래, 합리적으로 우리는 잘 행동해서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멸종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안 될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다. 그럼 우리는 그냥 공룡처럼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비관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태원: 아까 김형찬 선생님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9·11 테러 그 무렵에도 20세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을 하다가(…).

김형찬: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가치의 재배열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지금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동물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요즘 홍콩에서처럼 코로나19의 매개체으로 의심된다고 바로 "햄스터를 모두 죽여야 돼!"라고 하고, 유럽에서처럼 수백 년 동안 자유·평등·인권의 가치를 떠들다가 난민들이 밀려오니까 "난민 막아! 죽더라도 일단 쫓아내!"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은 좋아도 그것을 현실에서 다 실현하기는 어렵죠. 결국은 이상이 현실과 충돌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로 정

하느냐의 문제지요. 당장 난민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몰려올 때 "우리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현실의 문제란 말이지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방역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물론 저는 중국의 그런 방식에 찬성하지도 않고, 코로나에 좀 걸리더라도 중국 같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안 막고 이탈리아나 지금 미국처럼 코로나가 확산됐더라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현실인 거죠. 더 나아가면, 자유·평등·인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지금 개혁 개방 이후에 걸어온 길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서구의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해 왔죠. "중국이 그런 식으로는 얼마 못 간다. 계속 시장 개방을 하다 보면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는 무너질 거야." 그런데 중국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죠. 우리는 서구의 정치·경제 방식과 가치를 받아들여 따라가고 있고, 그 중에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모범 국가인데, 그와 다르게 중국이 바로 옆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모순적인 개념이라고 하지만, 하여간 몇십 년을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 온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진태원: 가치가 별로 소용이 없다?

김형찬: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지나치게 어떤 기존 가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거 모순 아니야?"라고 비판했는데 모순이건 말건 하여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팬데믹을 막는다고 자유를 그렇게 억압해도 돼?"라고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희생을 막는 유용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적잖은 중국인들이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평등・인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할 때 그 틀에 너무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원: 그 가치들 자체가 사실은 근대 서구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인 가치의 지위를 갖고 있냐, 그런 문제 제기네요.

김형찬: 한번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인간이 정말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냐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해볼 때가 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진태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굉장히 서구화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식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박정희 시대가 혹시 지속이 됐다면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김형찬: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국이 또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예컨대 조지 길더(George Gilder)가 설명하는 사회의 중층 구조가 있어요. 닉슨 정부에서 활동하고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공화당쪽의 신자유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회 구조를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에는 고(高)엔트로피 영역과 저(低)엔트로피 영역이 있다. 고엔트로피 영역은 무질서하지만 거기서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기업가 정신이 구현되는 부분이고, 저엔트로피 영역은 아주 안정적이고 기존 질서가 잘 유지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 두 영역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더는 고엔트로피 영역을 기업의 영역 또는 지식의 영역, 저엔트로피 영역을 정치권력의 영역으로 보고, 고엔트로피 즉 지식의 영역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결국 "기업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사회를 그렇게 다중적인 영역의 공존으로 보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사회 안에서도 기업가의 도전과 실험 정신이 정말 활발하게 구현돼야 될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을 만들어 가려면, 집에서 밥을 먹고 차 타고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저엔트로피의 영역이 유지돼야겠지요.

예컨대 "자유·평등·인권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이상적으로 똑같이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간다" 이게 아니고, 사회의 그런 다층적인 영역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고엔트로피 영역에서는 때로는 인권이 조금 무시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저엔트로피 영역에서는 자유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평등과 인권이 더 중시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사회 층위들을 나눠서 역할 분담들을 해야지 돌봄의 영역, 다른 인종의 영역 등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논의가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애플의 제품 개발실에서 혁신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게 적절한 건가? 물론 혁신이 잘 이루어지려면 돌봄의 영역이 뒷받침돼야겠지만, 그게 애플의 제품 개발실에서 강조돼야 될 부분일까 이런 거예요. 물론 거기서 희생되는 문제들이 또 있겠지만, 그렇게 좀 층위들을 나눠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이 가기도 하듯이 고엔트로피와 저엔트로피가 병존하는 방식으로 사회 층위를 나눠서 논의들을 좀 더 섬세하게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자영: 아까 자유와 사회에 관한 논의를 가치 재배열 관점에서 다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최근에 방역 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서 방역 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간섭한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인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약간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던 때였어요. 방역 패스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포함해서 접종이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 선택에 맡겨야 된다, 접종을 할 거냐 말 거

냐는 논쟁을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도대체 누구의 자유냐, 그리고 사회는 누구의 사회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가, 얘기가 되고 있는가라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망하는 자영업자,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 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존재하겠죠.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못 가서 우울증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자유와 어떤 사회의 어떤 대립, 우리가 누구의 자유, 누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누구의 사회성 관계, 사회적 관계의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태원: 그렇죠. 김형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마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누구의 관점에서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중 선생님?

김홍중: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우리가 옛날에 포스트모더니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했던 논의들은 허공에 떠 있었던 것 같고요. 요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실질적인 포스트모던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모델과 미국 모델, 한국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한국 사회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가 약 한 10여 년 내지 20년을 차이를 두고 중첩된 과정을 겪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예를 들어서 한 20년이나 30년 더 간 이후에 97년 레짐(regime)이 왔다면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산업화의 가치, 민주화의 가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가치가 서로 섞이고 융합되면서 지금의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발전을 꿈꾸고, 하지만 민주적 열망도 강하면서 동시에 경쟁과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냉혹한 사회, 이것이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원: 미국 모델하고도 다르고 또 중국 모델하고도 상당히 다른, 혼재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청중분들 가운데 오늘 발제나 토론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의 기회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김형찬: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윤 씨가 채팅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 전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문·사·철에서 접근한 사상이 이번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함에 따라 어떠한 사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존의 한국학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서구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우리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주로 해왔던 문·사·철 중심의 한국학은 다소 방어적인 거였죠. "우리도 정체성이 있어! 서구와 다르고 일본과 다른, 중국하고도 다른 정체성이 있어!" 그런 다름을 얘기를 하려니까 서구와 다른 전통 문화나 오랜 역사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우리한테도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인류사에서도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안 해도 "한국인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왜 독립국이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면서도 중국 나름의 문화 전통 속에서 공자(孔子)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최근에는 양명학(陽明學) 끄집어내서 자신을 설명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하지요.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또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지요. 그렇다면 우

리도 그 고민에 같이 참여할 때가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체성이 있어”라는 것보다 “그 문제는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 전 인류가 팬데믹에 부딪혔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국도 답을 주지 못하고 미국도 답을 주지 못하잖아? 우리도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과학기술로나 인류의 고민들을 같이 해 갈 단계에 와 있어. 우리도 우리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세계사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국 학문을 연구하는 것, 이게 지금의 한국학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관해 생각해보면, 보건의료적 대응과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을 좀 구별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보건의료적인 대응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표준화가 돼 있다, 또 표준화 모델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에서부터 역학 조사, 백신 패스 등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술 또는 5G나 블록체인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서로 아주 상이하고 갈등적인 모델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서로 수렴하는 모델, 더 효율적이고 더 개선되고 이런 것을 구축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 대응 방식에는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김형찬 선생님이 중국 식 모델과 서구 모델의 차이로 대비해주신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가 “팬데믹에 대한 대응 모델은 원래 자기 고유한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는 거야”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다소 상대주의적인 관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희는 그렇게 가,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또 “쟤네는 저렇게 가는구나.”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김형찬: 논의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논의할 논점들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 과학기술적 대응은 이미 표준화돼서 조금 다른 영역에 속하겠지만, 예컨대 실업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 사회의 문화나 이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이 있겠지만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늘려 해결하는 방식과 가계 부채를 늘려 해결하는 방식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어떤 비중으로 어디까지 늘리느냐는 단순히 수량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일 거예요.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도 중국이 늘리는 방식하고 미국이 늘리는 방식이 다르지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키면서 공통적인 논점들을 찾고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태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경제학자들 사이에 그것을 둘러싸고 상당히 첨예한 논쟁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별로 뚜렷한 논쟁이 없는 듯해요. 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 같은 것 말이죠.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윤자영: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의 재정적인 역할이요? 있었죠.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꼭 코로나19 아니어도 사실 기재부는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신념 수준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중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 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재정 준칙'이라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은 부채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계속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다 논의는

됐지만 결국 막는 건 기재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부처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요구를 해도 기재부가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재정적으로 쓴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안 썼다라는 보고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그랬죠. 특히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줄 거냐, 아니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하에만 줄 거냐? 그것도 결국은 재정 문제인 거고, 그것에 있어서도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갈려 있었던 게 사실이죠.

진태원: 그런 논쟁 같은 것을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정됐던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 오후 5시 28분인데, 그러면 선생님들 오늘 저희 좌담회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한마디 맺음말 하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찬 선생님부터.

김형찬: 팬데믹이 우리한테 준 충격이 워낙 컸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얼마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여서 대단히 좋았고요. 특히 다른 전공들, 다른 시각에서 보는 선생님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테고, 이런 논의들이 계속 더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김홍중: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짚어진 것 같고, 사실 하나씩 문제들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리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사회를 포함한 21세기의 인류 사회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빠르게 인지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사회와 인간을 고민하는 그런 문과 학문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생각과 도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그

런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운옥: 저도 많은 얘기들을 이 짧은 시간에 나눴지만, 그래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의제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지 길잡이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가장 생각을 해봐야되겠다 싶은 것은, "사회가 없어야, 사람이 안 모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역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은 정말 사회를 안 만들고 있나?"라고 보면, 물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랜선으로 망년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연애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도.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하니?" 그랬더니 "다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그 사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생각, 내 생각 속에 있는 사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낙인, 그런 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자기 질병 서사,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 경험을 이 사회를 새로 만들어가는 것에 어떤 마중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아카이빙이 되고 수집되고 기록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영: 저도 사실 인문학자 철학자들을 만나뵙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진심으로 정말 많이 배운 자리였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주류 담론은 여전히 돌봄에 대해서는 인간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인간을 넘어서서 비인간, 오늘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비인간까지 아우르는 이 돌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숙제를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원: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코로

나 팬데믹에 관해서 여러 전공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상당히 새로운 통찰과 자극, 새로운 사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됐던 여러 논제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좀 연속적으로 새로운 토론과 논의의 자리가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해 주신 다섯 분,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